상월결사 대학생 전법 '청사진' 나왔다

11월 11일 사부대중 전법대회서
대학생 전법 중장기 계획 발표
내년 2000명 대학생 불자 결집
'상월결사 대학생 영 캠프' 개최
2026년 3만명 불자대회 정례화
20만명 모이는 세계대회 목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1월 11일 열린 대학생전법기금 마련을 위한 사부대중 전법대회에서 참여 대중이 삼귀의를 하고 있다. 전법대회에서는 상월결사의 대학생 전법 청사진이 공개됐다.

대학생 전법 성공을 위한 사부대중의 뜨거운 원력이 모인 '대학생전법기금 마련을 위한 사부대중 전법대회(이하 사부대중 전법대회)'에서 상월결사가 펼칠 대학생 전법 불사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11월 11일 서울 강남 코엑스 메가박스 열린 '사부대중 전법대회'에서 대학생 전법의 중장기 계획 등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상월결사는 내년 중으로 △각 교구별 지역 거점대학에 신규 불교 동아리 1개 이상 설립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소속 동아리 활성화 △대학생 불자 영(YOUNG) 캠프 △전국 대학생 불교음악축제 개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교구별 신규 불교 동아리 설립은 현재 빠르게 성과를 보이고 있다. 통도사는 영산대, 마곡사는 공주대, 봉선사는 경동대, 전등사는 인천대, 국제선센터는 홍익대 등에 불교 동아리 설립했거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상월결사 대학생 불자 영 캠프'는 2000여 대학생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대급 신행축제가 될 전망이다. 캠프의 준비를 대학생 불자들이 직접 맡는 것도 눈길을 끈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상월결사는 대학생 불자들을 중심으로 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캠프 행사 전반을 대학생 불자들이 직접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인 계획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상월결사는 장기적으로 전국 대학 불교 동아리 300개를 신설·운영해 대학생 전법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26년 3만 명을 목표로 '전국 대학생 불자대회'를 정례화하며, 한국 대학생 불자를 주축으로 세계 불자 청년 20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한 대학 입학을 시작으로 군 입대-제대-복학-취업으로 이어지는 대학생들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전법과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할 방침이다.

상월결사가 제시한 대학생 전법 청사진이 잘 실천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하고 교구·직능별 전법위원들을 위촉하며 인력 인프라는 구축됐지만, 안정적인 전법 불사를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도 함께 마련돼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 대학생 불교 동아리를 원만히 운영하는 데에는 연간 2~3000만원가량의 활동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는 대학생 포교의 원력을 가진 지도법사와 불자교수가 사비를 출연해 활동비를 보조하거나 어렵게 보시를 끌어오는 형태였다. 그러다보니 신실한 지도법사와 불자교수가 부재할 경우 불교 동아리의 명맥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그렇기에 대학생 불교 동아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활동비 지원은 대학생 전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월결사는 대규모 모금행사와 소액 모금운동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월결사는 "전법대회를 통한 대규모 모금 활동으로 전법위원회 운영의 씨앗을 확보하고, 소액 기부 콘텐츠 개발과 소액 기부 문화의 확산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규모 모금과 소액 모금의 조화로운 모금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대학생 전법포교의 든든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상월결사와 전법교화' 학술대회 연다

조계종 중앙종회 · 불교학술원
12월 8일 국제회의장서 개최
(사)상월결사 1주년 기념 맞아
상월결사 의미 고찰 등 논의
"내년엔 '대학생 전법' 다뤄"



상월결사 전법의 불교사상적 의미를 살피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와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은 12월 8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상월결사와 한국불교의 전법교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총무원·교육원·포교원 등 불교계 주요 기관들이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사단법인 상월결사 창립 1주년을 맞아 열린다.

사단법인 상월결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봉은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적극적인 전법 불사에 나섰다. 당시 창립총회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작금 불교는 포교가 가장 문제다. 상월결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대학생 포교"라며 "법인에서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대학 불교 동아리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대학생 전법의 실천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처님 전법교화 정신과 상월결사의 전법 정신의 연계성을 학술적으로 정립하고 대학생 전법·포교의 기조를 마련하는데 있다.

11월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사진〉에서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4년 전 상월선원 천막결사로 시작된 상월결사는 이제는 명실상부 한국불교사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이 같은 흐름과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성과 속도를 가지려면 다양한 제안과 논의들이 필요하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불교 위기 상황 속에 대두된 해법인 '대학생 전법'과 상월결사의 전법 정신을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상월결사 전법 원력이 지향하는 불교 중흥의 핵심 가치'를 주제로 한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황순일 동국대 불교대학장은 '인도불교의 부흥에 있어서 한국불교의 역할-불교 학술네트워크 확립을 중심으로',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상월결사의 시작과 전법과정',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는 '상월결사의 불교사상적 의미와 향후 역할'을 발표한다.

대학생 전법 관련해 실질적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전법 주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유정현 회장은 '대학생이 원하는 한국불교 포교'를 주제로 현재 대학생들의 니즈를 사부대중에게 전할 예정이다. 동아리 지도교수를 대표해서는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이 '한국불교의 대학생 포교 진흥 방안'을 발표한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학문적인 논의를 넘어 전법·포교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의견을 듣기 위해 유정현 대불련 회장을 발표자로 섭외했다. 대학생과 지도교수들의 니즈를 파악해 전법 불사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교학술원도 실사구시적인 불교학 정립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내년에는 한국불교 최대 화두인 '대학생 전법'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전법 관련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 시작점이기도 한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덕수 스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노력"

김영호 통일부장관 예방서 당부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 간 인도적 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사진〉

덕수 스님은 11월 14일 인사차 서울 관문사를 찾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천태종 사회부장 진철 스님, 교무부장 도웅 스님, 나누며하나되기 정책실장 문법 스님과 강연서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장, 조용식 민간교류관리과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천태종은 삼대 지표 중 하나인 애국불교를 늘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평안과 국운융창을 기원하고 있다"며 "남북문제가 잘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모든 국민의 근심도 사라질 수 있다. 전쟁 없이 평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천태종은 개성 영통사 복원 불사 등 남북 불교도가 함께하는 교류 행사를 많이 진행해 왔다"며 "우리 종단에서 정부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교류사업을 진행해온 만큼, 남북이 계속해서 인도적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남북 관계 발전에 앞장서준 천태종에 감사를 표하며 "정부와 국제 인도 지원 기구들이 대북 인도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건이 개선되면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70년 분단 역사 속 남북은 여러 부분에서 이질성이 확대, 심화됐지만 천태종을 비롯한 종교계가 나서준다면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정부도 남북 간 교류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천태종에서도 원만한 남북 관계를 위해 지혜와 조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무산 대종사 유지 선양 '무산문화대상' 첫 공모

설악 ·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제1회 무산문화대상 공모

설악산문을 복원해 전법당간을 세우고 한국 선시의 현대화에 앞장섰던 설악무산 대종사의 유지를 계승·선양하기 위한 '무산문화대상(霧山文化大賞)'이 제정돼 첫 공모에 들어갔다.

재단법인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설악산 신흥사 조실 무산 대종사의 유지를 선양하기 위한 '무산문화대상'을 제정하고 첫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산문화대상은 한국문학과 예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한국 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 실천해 온 인물들을 표창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문학 △예술 △사회문화로 각 부문별 1인을 선정해 1억 원과 상패를 수여한다.

문학 부문은 시·소설·희곡·아동문학·문학평론 등에서 우수한 작품을 발표한 중진 문인을 선정하며, 예술 부문은 한국음악·미술·연극·영화·무용·사진·건축·대중문화 등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중진 예술가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사회문화 부문은 체육·전통문화·음식·의상·사회봉사 등 분야에서 활동한 내외국인을 수상자로 뽑아 격려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을 희망하는 사람은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 홈페이지(manhaemusan.or.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재단 사무국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내년 4월에 수상자를 발표하며, 5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선양회는 "재단은 무산문화대상의 운영을 위해 무산문화대상 후보자 추천, 심사, 시상 등을 모두 관리하며 매년 무산문화대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인도 성지순례 10일
동 참 금 : 269만원~
주 요 일 정 : 녹야원–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아그라–델리
체크포인트 : 호텔, 열반당 가사 공양, 인도·네팔 비자 비용 포함, 성지순례구간 한식 요리사, 전 구간 불교 전문 가이드
▶2024년 2월 22일 ~ 2024년 3월 2일
▶2024년 3월 14일 ~ 2024년 3월 23일

인도 성지순례 13일(아잔타 석굴 포함)
동 참 금 : 320만원~
주 요 일 정 : 델리–오랑가바드–아잔타 석굴–엘로라 석굴–산치 대탑–아그라–기원정사–룸비니–쿠쉬나가르–케사리아–바이샬리–나란다–죽림정사–영축산–보드가야–녹야원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순례 6일
주 요 일 정 : 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시기리야–폴론나루와–담불라–캔디 불치사–콜롬보

주요 불교성지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액티비티 체험까지 多!
라오스 성지순례 5일
동 참 금 : 149만원~
주 요 일 정 : 탓루앙–탁발 행렬 참관–꽝시 폭포–왓씨엥통–탐쌍/탐남동굴
체크포인트 : 특급호텔, 롱테일 보트 체험, 블루라군, 전신마사지 2시간
▶ 2024년 1월 12일 ~2024년 1월 16일
▶ 2024년 1월 17일 ~2024년 1월 21일

불광산사 등 대표순례지와 자연과 문화, 휴식까지
대만 완벽 순례 5일
동 참 금 : 169만원~
주 요 일 정 : 불광사–불타기념관–중태선사–자제공덕회–태로각협곡–법고산사–자항사
▶2024년 1월 16일 ~ 2024년 1월 20일
▶2024년 2월 25일 ~ 2024년 2월 29일
▶2024년 3월 14일 ~ 2024년 3월 18일

세계 3대 불교유적지 보로부두르 사원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성지순례 5일
주 요 일 정 : 자카르타–족자카르타–보로부두르 사원–프람바난 사원–머라피 화산

중국 4대 불산
– 관세음보살의 상주처 보타·낙가산
– 지장보살의 상주처 구화산
– 보현보살의 상주처 아미산
– 문수보살의 상주처 오대산



예약·상담 02-365-7747
www.mahayeon.com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